

# 한국특허정보원, 중소·벤처기업 특허출원 지원 활성화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은 지난 6월 9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와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출원 지원 및 특허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허청 산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KIPT)과 민간 연구기관의 종합유성 및 지원, 산업기술 정책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 연구소 종합지원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이날 산기협 회장실에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력과 상호 유대증진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 지원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 기술동향 조사분석 등에 관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오른쪽)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최재의 부회장이 업무협약 조인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 지식재산권 조사·분석연구,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 사항 해소 및 특허정보, 특허분쟁 등에 대한 상호 세미나, 워크숍 실시, 중소·벤처기업 특허출원 지원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교류 및 공동 활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특

허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지원함으로써 산업 및 업체의 특허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등 5천여 회원사가 소속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특허정보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연구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화는 물론,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산업발전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국제상표제도 인터넷 사전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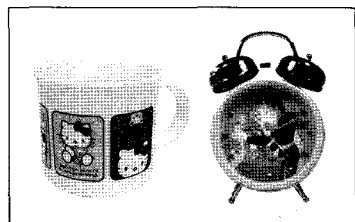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국내 브랜드의 국제적인 보호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인터넷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협력하여 하나의 상표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인터넷 사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통해 외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출원이 급증하여 외국의 상표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되는데 반하여,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가 도용되고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이

유 중의 하나가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에 따른 제도 이용률 저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5월 지식포털사이트 1위 업체인 네이버와 지식서비스 스폰서 계약을 맺어,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 대하여 네이버의 지식(IN) 창구에 질문하면 즉시 답변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국제상표제도에 대한 개요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FAQ) 자료 등도 인터넷 지식(IN) 창구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이와 아울러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kipo\\_madrid](http://cafe.naver.com/kipo_madrid))와 국제상표제도에

관한 키워드 광고(키워드:국제상표) 등을 통해 국제상표제도와 관련한 맞춤형 정보와 국제상표출원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제출원서포터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중에는 국제상표제도에 관한 콘텐츠를 강화한 독립된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인터넷 사전 행정 서비스를 잘 활용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함은 물론, 각국의 독특한 상표제도와 심사관행 등 다양한 맞춤형 지식을 얻어 우리 기업의 국제적인 브랜드 강화전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헬로키티 등 해외 캐릭터 상표 몰려온다

일본 산리오, 미국 디즈니 등 해외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이 국내 상표 등록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아기와양이 헬로키티와 도널드덕 등 유명 캐릭터를 앞세워 등록 상표를 세분화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4월까지 국내에 상표 등록한 1백대 기업 가운데 외국 기업이 무려 19개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기와양이를 의인화한 캐릭터 '헬로키티'로 잘 알려진 일본 완구업체 산리오는 총 6백27건을 등록해 외국기업 가운데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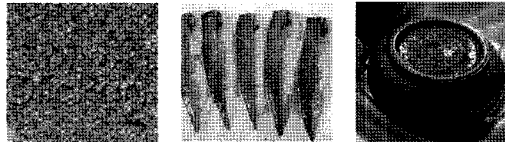
국내에 상표 등록한 1백대 기업 가운데 외국 기업이 19개일 정도로 헬로키티나 디즈니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외 기업을 포함해선 7위에 랭크됐다. 산리오는 액세서리, 광고 디자인, 출판 등 산업에 헬로키티를 적용했 뿐 아니라 매일이용 스펀지, 칫솔걸이, 휴대폰 받침대, 물병 케이스, 기저귀 등의 제품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키마우스와 도널드덕 캐릭터로 유명한 미국 디즈니엔터프라이즈는 5백85건으로 8위를 차지했다. 두 회사는 LG전자(5백10건)나 애경산업(4백2건)보다 많은 수치의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외국기업 가운데는 미국 대형 할인매장업체 월마트(25위)를 비롯해 초콜릿 'M&M's'로 유명한 미국 식품회사 마스터푸드(33위), 국제축구연맹(FIFA·34위), 일본의 류업체 화이브 호크스(35위), 일본 자전거업체 시마노(40위), 미국 헬스케어그룹 존슨앤드존슨(47위)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상식

# 이것만은 꼭 지키자! 거친 음식 건강법 8계명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거친 음식이다. 자연에서 자라고, 자연적으로 조리한 음식을 거친 음식이라고 칭하는데, 이 거친 음식을 잘 먹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 천천히 오랫동안 씹어 먹는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뇌에서 느끼기도 전에 계속 먹게 되어 살이 쪼다. 현미, 통밀가루 등 거친 음식은 오래 씹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부담이 없고, 골고루 먹을 수 있어 건강에 좋다. 꼭꼭 씹어 먹으면 뇌가 자극을 받아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진다. 입에서 30~40회 정도 씹어 남기고, 식사는 20분 이상 걸려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2.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  
거친 음식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요리해 먹어야 제 맛이 나고 몸에 좋다. 또한 직접 요리를 하다보면 요리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사랑이 깃든 음식을 만들 수 있어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3. 토종식품과 전통식품을 먹는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그 지방의 기후, 풍토에 맞게 자라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 맞는 특성이 있다. 수확 후, 가공하거나 냉장 보관하지 않고 바로 소비할 수 있어 신선하고 영양가도 높다. 예부터 먹어 온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의 발효 식품도 몸에 좋은 거친 음식이다.

**4. 색과 향이 진한 식품을 먹는다**  
자연에서 자란 거친 식품은 햇빛을 많이 받고 모진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화학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색과 향이 진하다. 이 화학물질은 면역력을 높이고 암과 성인병 등을 예방, 치료하는 등 유익한 효능을 발휘한다. 주로 곡물이나 과일, 채소의 껍질에 들어 있다.

**5.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식품을 먹는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뿌려 키운 식품은 생리활성물질이 다양하게 생성되지 못해 영양가가 떨어진다. 게다가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토양마저 죽게 되어 다른 식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연환경 속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가 영양면에서 더 우수하다.

**6. 살아있는 발아식품을 먹는다**  
도정하여 씨눈이 벗겨져 나간 식품들은 씹이 트지 않는다. 다시 말해, 씹이 튼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다. 또한 발아 과정에서 비타민이나 생리활성물질이 많이 생겨 건강에 좋다. 현미, 보리, 밀, 메밀, 콩 무싹앗 등 거의 모든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씹이 튼다.

**7. 도정하지 않은 곡식을 먹는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은 곡물의 씨눈과 겨층에 많이 들어 있다. 백미나 밀가루는 도정이나 제분과정에서 씨눈과 겨층이 대부분 벗겨져 나가 영양 손실이 크다. 따라서 현미, 통밀 등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8. 일주일에 두세 번, 푸른 생선을 먹는다**  
푸른 생선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죽이고, 이로써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좋은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 태아와 유아의 뇌를 발달시키고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DHA도 몸에 좋은 오메가 지방산의 일종으로 이러한 지방산은 고등어, 꽂치, 정어리, 참치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다.